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 '아들에게 쓰는 편지'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 © 승인 2020.09.03 09:43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긴 장마에 너가 묻혀있는 묘가 잘 있는지 더 걱정되는 요즘이란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석 달만 지나면 너와 이별한 지 벌써 2주년이 되는구나. 너가 그렇게 허망하게 간 뒤 엄마는 그 사건에 시간이 멈춰진 듯 어제 일처럼 기억이 생생하고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지켜주지 못한 것에 스스로 책망하며 아픔으로 살아있어도 사는 낙이 없단다. 그렇지만 엄마는 살아서 꼭 하고 싶은 일이 너로 인해 생겼단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딴 김용균재단을 만들었고, 너의 뜻을 받들어 그 책임을 물으려고 서부발전 원하청과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단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엉망이 된 사회를 단죄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를 엄마 이름으로 국민청원을 넣었단다. 이것은 그동안 너처럼 수없이 많이 억울하게 죽어간 영령들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허망하게 죽는 것을 막는 강력한 법이 되어야 해. 반복되는 산재사고는 기업이 안전을 무시한 결과이고 명백한 기업살인이기에 그 처벌 또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고 기업 스스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게 함으로써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을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고자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들려고 한단다.

물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 더 가슴이 미어진다. 하지만 죽음을 막지 않는다면 너와 나처럼 생이별하는 수많은 가족이 얼마나 가슴 치며 나처럼 살겠니?

우리 가족의 파탄이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헛된 죽음은 되지 않겠지 하는 너에게 위로라도 되어주고 싶구나. 너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곁에 항상 맴돌고 있을 너에게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은 게 미안해하는 엄마의 마음이란다.

너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낸 뒤 많은 시민의 도움으로 산안법을 통과시켰지만, 그 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민을 기만한 법이었기에 또 다른 죽음을 막지 못하였단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강력한 법을 만들려고 해.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9월 25일까지 10만인 이상 국민청원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매일매일 속 타는 심정으로 염원하고 있고 너도 엄마가 가는 길에 지지하고 응원해주길 바란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들 용균아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now.worknworld@gmail.com